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7.22총파업
특별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함께 살자!

코로나 경제위기! 애고, 임금삭감으로 애걸 못합니다!



코로나 위기 틈타 해고, 임금삭감 강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해고, 임금 삭감, 퇴직 강요, 강제 연차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더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중소, 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재벌은 또 특혜 요구!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앞세워 각종 특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핑계로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여기던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해고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자본의 배만 불리는 내용입니다. 가

계부채는 1,200조원에 이르고,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본의 배만 더 불리겠다는 염치없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1997년 IMF,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때처럼 단기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 삭감해서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재벌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 시야와 안목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전 사회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지금이 폐기할 때!

복수노조 10년! 피해가 심각하다!

2011년 시행된 복수노조법은 자본에게 큰 선물을 줬습니다. 어용노조를 키우고, 민주노조를 말살할 수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입니다. 자본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엔텍, 유성, 보쉬전장, 콘티넨탈에서 어용노조를 키우고 민주노조를 약화시켰습니다. 어용노조가 망친 현장을 개선하려고 민주노조를 선택한 한국타이어, 현대성우메탈, 현대모비스 충주공장도 피해를 봤습니다. 한국타이어와 현대성우메탈은 단 한번도 회사와 교섭해보지 못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은 혁신적인 활동으로 다수노조가 되어 교섭권을 얻었지만, 언제든지 교섭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충분하다! 악법은 폐기하자!

이미 10년의 세월동안 이 제도의 폐해가 드러났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현실에서 수많은 노조,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법이라면 사라져야 합니다. 10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런 악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지부 내 복수노조 사업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투쟁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비롯해 위기가 오면 언제나 자본은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해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은 우리 노조를 지키는 투쟁이고, 내 권리를 지키는 투쟁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7.3 지부 복수노조 사업장 공동 순회투쟁>

재벌체제 청산! 모든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

자본의 경제위기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중단! 생존권 사수!

2020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총파업대회

■ 일시 : 7/22(수) 15시

■ 장소 : 대전 한온시스템 → 보쉬 (행진)

※ 지부 전체 조합원들의 참여로 함께 살기 위한 총파업 투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